

석학에게 듣다...인문학의 즐거움

‘문화의 안과 밖’ 기획 3일부터 ‘윤리와 인간의 삶’ 50주 강의
김우창·최장집 교수 등 참여...네이버 동영상·원고 전문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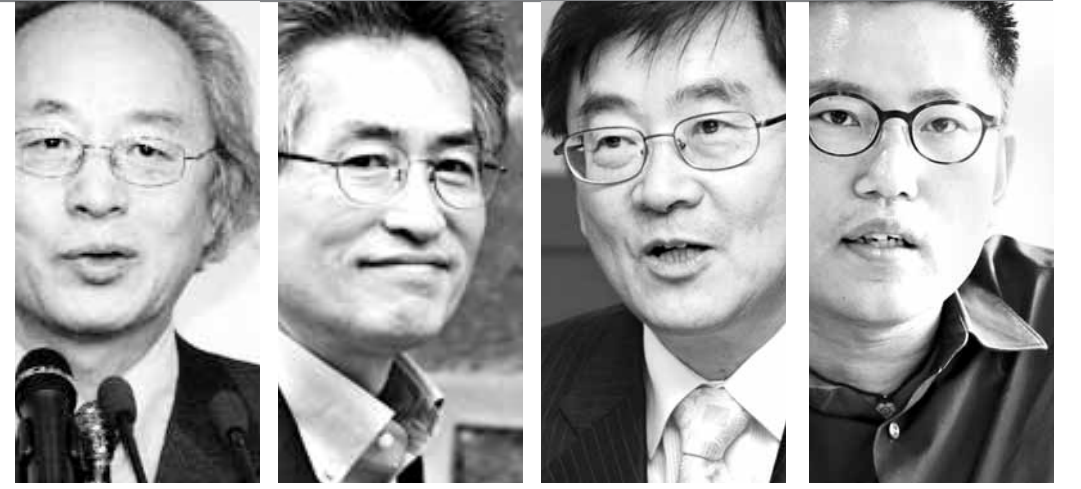


김우창 최장집 장하성 주경철

지난 2014년 첫발을 댄 인문학 강좌 ‘문화의 안과 밖’ 프로젝트는 많은 이들에게 ‘공부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운영위원이 강연 기획과 강사 섭외, 진행까지 직접 참여한 ‘문화의 안과 밖’에는 내로라하는 국내 석학들이 참여했다. 특히 서울에서 열리는 강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강연 내용과 강연 원고 전문을 인터넷으로 제공해 많은 이들의 갈증을 풀어줬다.

1년 동안 50강으로 이뤄진 강의는 첫째 ‘오늘의 시대에 대한 문화적 성찰’ 주제 강연에 이어 지난해에는 ‘오늘의 시대와 고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해 강연 동영상 조회수는 첫해의 3배가 넘는 100만회를 넘어섰고, 페이지뷰는 1326만을 기록했다. 주 이용자는 40대가 31%를 차지했으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 정약용의 ‘목민심서’, ‘동양의 고전 : 고전 이해를 위한 방법론적 서언’, 노자의 ‘도덕경’과 장자의 ‘장자’가 인기 강연으로 꼽혔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강의 주제는 ‘윤리와 인간의 삶’이다. 1년 동안 7개 섹션, 50회로 진행되는 강연은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위해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예술 등 사회 전반적으로 윤리 도덕



김광웅 정수복 안경환 김대식

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섹션 ‘국가와 윤리’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윤리 도덕을 살펴보는 강좌다. 김우창 교수의 ‘윤리와 인간의 삶’을 시작으로 주경철 서울대 교수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국가의 현실, 개인의 현실’ 강의가 이어진다.

정치 사회의 윤리도덕을 살펴보는 2·3섹션에서는 임지현(서강대) 교수의 ‘국가주의와 기억의 정치’,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의 ‘여론과 공론-대중 매체의 책임’,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법조 윤리와 정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 ‘사회와 윤리’ 섹션에서는 가족, 법윤리, 기업의 학교 교육 등 사회의 다양한 제도 속에서 윤

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 지 알아본다. 강연자는 사회학자 정수복(조직, 윤리, 규범), 장하성 고려대 교수(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다.

그밖에 ‘윤리와 인간성’, ‘학문, 과학, 기술, 윤리’, ‘윤리의 정신적 차원’ 섹션을 통해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의 ‘필요 소비와 과소비’,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의 ‘인공 지능과 인간’, 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의 ‘스승의 길’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서울 안국빌딩 W스테이지에서 열리며 강연 영상과 강연 원고 전문은 다음 주 금요일 ‘문화의 안과 밖’ 홈페이지(openlectures.naver.com)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기존 2014년, 2015년 강연 영상도 현재 제공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학자 57명 참여 국어어미론 연구 ‘성과’

윤평현 전남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총 발간

윤평현 전남대(국어국문과·사진)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연구 논문집이 최근 발간됐다. 국어어미론 학계의 주요 교수들이 망라된 이번 논문집에는 지난 2000년 이후 연구 성과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모두 57명의 학자들이 참여해 모두 3권으로 완간한 논문집은 책의 규모(1700페이지)나 질적인 측면에서 국어어미론 연구를 집대성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독보적이다.

윤 교수는 “정년을 기념해 동학(同學)과 후학(後學)들이 기념 논총을 발간해준 데 대해 마음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낀다”면서 “한 편 한 편 귀한 옥고 없었으면 책은 발간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총의 1권 ‘국어어미론의 탐색’(연락)에는 의미 연구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어휘 의미의 성과가 수록돼 있다. ‘의미 투명성과 관련한 국어의 제현상에 대하여’(김정남), “짜다” 계열 어휘의 의미 확장 연구’(김해미), ‘현대 국어 감정동사의 범위와 의미 특성에 대한 연구’(김은영) 등 모두 21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2권 ‘국어어미론의 심화’에는 ‘개념어미론과 함성성’(양정석),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민현식), ‘국어 발화의 의미에 대하여’(최호철) 등 모두 17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3권 ‘국어어미론의 접목과 확장’에는 ‘어휘의미



론과 인지언어학’(임지풍), ‘의미 확장에 있어서 도식의 역할’(이건환), ‘전남 신안 지역어의 어휘적 특징’(이기갑) 등 19편이 실려 있다.

기념논총 간행위원회는 “선생님을 한 마디로 전성이 외유내강하신 분”이라면서 “존경 받는 교육자로서, 학문의 경지가 높은 학자로서 후회 없는 교단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교수는 지금까지 10권의 저서와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한국어어미학회 회장, 국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 2008년 발간한 ‘국어어미론’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등 국어학계의 연구와 교육에 기여했다. 정년퇴임을 했으나 윤 교수는 올해부터 3년간 중국 북단대학 외국인 석좌교수 신분으로 연구와 강의를 할 예정이다.

윤 교수는 “40여 년 몸담은 교단을 떠나는 마음은 사일섭섭하다”면서도 “주위 분들의 도움으로 그런 대로 잘 마친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협력형 사업

176개 단체 선정

광주문화재단 20억원 지원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1월 공모한 2016년 ‘지역협력형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176개 단체·개인에게 약 20억원을 지원한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는 광산문화예술회관, 서구문화센터, 남구문화예술회관, 북구청소녀수련관이 선정됐다. 빛고을 시민문화관은 자체 기획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은 음악미술관, 아트주, 바람미디어스페이스, Project B, 의재미술관 등 총 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에는 총 6개 단체가 뽑혔다. 남도전통음식연구회, 광주내셔널 필하모닉오케스트라,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광주지회, 독립큐레이터그룹 오버랩, 풍류회 죽선방, 한국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회 등이다.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은 예총광주지회, 아시아 발레단, 나빌레라예술단 등 총 12개 단체를 선정, 지원한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147개를 선정했다. 장르별로 미술 48개, 문학 34개, 음악 18개, 다원예술 13개, 전통예술 18개, 연극 8개, 사진 4개, 무용 4개다. 문의 062-670-744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심청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

3일 빛고을국악전수관 흥양예술단 초청 퓨전창극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3일 오후 7시 흥양예술단 초청해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심청 그리고孝<사친>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 2007년 창단한 ‘흥양예술단’은 매년 한차례 정기공연을 여는 등 국악 저변 확대와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는 소리꾼 3명이 1인 1역을 맡아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인 심청전에 뮤지컬 형식을 가미한 퓨전창극을 선보인다. 창극은 ‘곽씨 부인의 유언’ 대목으로 시작한다.

‘심봉사 그리고 뽕떡이네’ 대목은 뽕떡이네가

심봉사가 관가에서 받은 황성 맹인잔치 여비를 들고 야반도주하는 대목이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시대를 풍자하며 해학적으로 풀어낸다.

‘심봉사와 심황후, 상봉’은 심황후가 된 심청과 심봉사가 맹인잔치에서 상봉하는 대목으로, 심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이 클라이막스다.

그밖에 ‘대동한마당’에서는 대중적인 민요로 손꼽히는 성주풀이, 남한산성, 진도아리랑 등을 관객들과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무료 관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이 궁금한 셀럽! 밀착토크 헤드립니다!

밀착토크 **몽근-도현쇼** Show

MC 공형진 MC 홍진영

매주 월요일 밤 11시

	<p>[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p> <p>[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p>	<p>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p> <p>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p>	<p>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p> <p>해남 영암 진도 장흥</p>	<p>스카이라이프 13</p> <p>IPTV 18</p>	<p>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p> <p>www.ichannelA.com</p>
--	---	--	--	---	--